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98

#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

(마태복음 27:33-66, 마가복음 15:22-47,  
누가복음 23:33-56, 요한복음 19:17-42)

금요일 아침 9시 경, 골고다 언덕에 커다란  
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.  
예수님과 죄인 두 명, 총 세 사람을 십자가에  
못 박는 소리였죠.

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끔찍한 고통에  
죄인들은 비명을 질렀고  
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시며 이전 정말  
기력이 없는 모습이셨어요.

그리고 잠시 후, 마침내 예수님이 못 박히신  
십자가가 땅 위에 세워졌어요.  
그 십자가 양 옆으로, 죄인 두 사람이 못 박힌  
십자가도 세워졌죠.

그 아래에서 병사들은  
예수님의 옷을 집어 들고 시시덕거렸어요.

**“이 옷.. 쓸 만해 보이는데?  
내가 기념으로 이거 가져도 되겠지?”**

**“누구 맘대로? 차라리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 
예수 옷의 주인을 정하자구!”**

예수님을 미워한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 
흡족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놀려댔어요.

**“오홍홍홍.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삼 일만에  
세운다던 예수야!  
그렇게 니가 대단하다면 어디 네 녀석부터  
구원해 보거라! 오홍홍홍.”**

**“그래! 니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느냐!  
어디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거라!  
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을 것이니! 헤헛!”**



그리고 심지어는, 예수님의 옆에 못 박혀 있던  
한 죄인마저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.

**“어이! 당신이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나?  
우리 세 명 구해주는 건 일도 아닐텐데  
빨리 손 좀 써보지 그러냐?”**

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죄인이 말했어요.

**“이보시오, 곧 죽게 될 마당에 하나님도 두렵지도 않소?  
그 쪽이나 나는 강도짓을 했으니 벌 받는 게 당연하지만  
여기 계신 이 분은 아무런 죄가 없소이다.”**

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.

**“예수님,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 
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..”**

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.

**“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 
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..”**

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 
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, 예수님의 이모  
‘막달라 마리아’라는 여인, 그리고  
열 두 제자 중 한 명인 ‘요한’도 있었어요.  
예수님께서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죠.

“어머니, 이제부터는 어머니 옆에 있는  
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.  
요한아,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.”

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지  
어느덧 몇 시간이 지났어요.

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지더니  
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죠.  
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힘없이 계시던 예수님이  
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셨습니다.

**“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!”**

이 말은

**“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  
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?”**

이런 뜻이었죠.



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 
엘리아 선지자를 부르신다고 생각했어요.

이제 예수님께서서는, 극심한 고통과 함께  
정말로 죽어가고 계셨어요.

“내가... 목이 마르다...”

그러자 병사 한 사람이, 스펀지에 포도주를 적셔서  
지팡이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가에 갖다 뒀어요.

예수님께서서는 포도주에 입을 대시고는  
다시 한 번 큰 소리를 지르셨죠.

**“아버지,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...!  
이제... 다 이루었다...!”**

그 외침은, 승리의 외침이었어요.  
이 땅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서,사람들의 죄를  
씻어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특별한 미션이  
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.  
그렇게 예수님께서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.

그리고 그 순간,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 
휘장이 찢어지면서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 
두 쪽으로 갈라졌어요!

그 뿐만이 아니었어요.  
땅이 흔들리고, 바위가 쪼개지면서  
하늘이 무너지는 듯 커다란 소리가 났죠.  
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.

그 모습을 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 
이렇게 말했답니다!

“세상에 이런 일이...!  
정말로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...!”

이제 해가 지고, 어둠이 찾아왔어요.  
빌라도 총독의 집에, ‘요셉’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죠.  
요셉은 남몰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.

**“빌라도 총독,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 
가져가게 해 주십시오!  
내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니  
그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드리고 싶습니다.”**



그러자 빌라도가 군대 지휘관을 불러 명령했어요.

**“이 자와 함께 가서 예수를 확인해보거라.  
예수가 확실히 죽었다면 시체를 넘겨줘도 좋다.”**

지휘관이 요셉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가서, 병사에게  
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확인해보게 했어요.  
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 
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죠.

**“죽은 게 확실하구만.  
요셉, 시체를 가져가도 좋소.”**

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레 내려서  
곱게 찢은 삼베로 감쌌어요.  
그리고 ‘니고데모’라는 친구와 함께 시신을  
바위 무덤으로 모셔갔죠.  
그 무덤은, 요셉이 자신이 죽을 날을 대비해서 사 둔  
새 무덤이었어요.

막달라 마리아와 ‘마리아’라는  
이름을 가진 또다른 여인도 요셉, 니고데모와 함께  
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어요.

그들은 예수님의 누워계신 모습을  
확인하고 나왔죠.  
무덤이 돌문으로 막힌 뒤에도 두 여인은 밤새 울면서  
무덤 앞에 앉아있었어요.

이튿날 아침,  
제사장들이 허겁지겁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어요.

“총독님,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말입니다,  
예수가 살아있을 때 영 찼찼한 말을 한 적이 있더라구요.”

**“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느냐?”**

**“그게, 터무니없는 말이긴 한데 자기가 죽은지  
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.  
그러니 얼른 병사들을 시켜  
예수의 무덤을 지키라고 해주십시오.”**

**“뭐라? 그대들은 지금..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 
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게 두려운 건가?”**



**“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총독! 부활은 말도 안 되지요!  
다만 예수의 제자 녀석들이  
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숨겨 놓은 다음 백성들에게  
‘예수가 살아 나오셨다~’ 또 거짓 선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 
그걸 사전에 방지하자는 겁니다!”**

**빌라도는 그 말이 옳리 있다고 생각했어요.  
그래서 병사들을 시켜 예수님이 계신 무덤 입구를  
단단히 막게 하고 그 앞을 지키라고 명령했죠.**

**그렇게 철통같은 경비 속에 어느덧 예수님께서 돌아가신지  
하루, 이틀, 사흘째가 되고 있었답니다!**